

고물가에 '외식' 줄이고 '한 톱' 사라진다

광주 우선 줄일 지출항목 1순위 '외식비' 10년새 5.2%p 늘어 더치페이 확산에 식당들 메뉴·금액분할 결제 키오스크 마련

외식 물가가 갑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고금리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 부담도 커지면서 식비부터 줄여보자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7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19세 이상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을 물어보니 '외식비'를 택한 비중이 31.8%로 가장 많았다.

식료품비가 28.3%로 뒤를 이었고, 의류비(12.1%), 문화여가비(9.9%), 주류·담배 구입비(5.1%), 경조사비(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외식비부터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은 5.2%포인트 늘었다. 식료품비를 꼽은 비중도 같은 기간 22.1%에서 28.3%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민들이 식비 지출부터 줄이는 이유는 외식물가 상승세가 유달리 가파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지역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광주 7.1%·전남 5.7%인데,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7.1%·전남 7.7%로 전체 품목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해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9.0%에 달했는데, 전남 상승률은 지난 7월(9.0%)부터 5개월 연속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공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주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1년 전보다 10% 안팎 올랐다.

삼겹살 200g(환산 후) 가격은 1년 사이 11.5%(1만2956원→1만4444원) 오르고, 칼국수 1인분은 11.1%(7200원→8000원) 인상하며 '두 자릿수' 인상을 나타냈다.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은 9100원으로 1년 전보다 4.6%(400원)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도 9.9%(700원) 오른 7800원이 됐다.

이외 자장면 8.8%(5700원→6200원), 냉면 9.6%(8300원→9100원), 삼계탕 5.5%(1만4600원→1만5400원), 김밥 7.4%(2700원→2900원) 등 8개 품목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어딜 가도 만원 한 장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들어지자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자기 뭇만 내는 이른바 'N분의 1'을 하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광주·전남지역 기관 구내식당업 카드 매출액을 산출해보니 올해 1~8월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0.0%(7억원) 늘어난 7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는 16억원에서 19억원으로 18.8% 증가하고, 전남은 54억원에서

58억원으로 7.4% 늘었다.

하지만 구내식당 식자비도 올해 들어 광주 1.8%·전남 8.0%(11월 누계) 오르며, 물가 인상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일부 식당은 선불 단계에서 각자 뭇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 탑재하고 있다. 자신이 시킨 음식값만 내는 '메뉴 나눔'이나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내는 '금액 나눔'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금융부채는 올해 3월 기준 광주 5658만원·전남 4515만원으로, 1년 새 빚 부담이 광주 1.6%·전남 16.9% 늘었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세밀은 줄고 여수선하다.

앞선 데 넉넉 가격으로, 카드사들은 기존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이 늘어 '무이자 할부' 혜택부터 축소하면서 연말 돈 쓸 일 많은 소비자가 난처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인 카드사는 우리·KB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 등이다. 가맹점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를 2~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식당은 음식값을 '인원수'대로 나눠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식탁마다 놓았다.

3개월로 단축하는 식이다.

광주은행의 KJ카드 할부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소액 할부 이용 건수는 올해 1~10월 기준 13만9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760건)보다 1471건(1.1%) 증가했다.

지난 10월 한 달 광주은행 카드 고객들은 소액 할부를 1만4739건 이용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701건(5.0%) 늘고 지난해 동기보다는 1050건(7.7%) 증가한 수치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

페이·온라인 거래 증가에 지폐 유통 수명 늘어났다

각종 페이 등 비(非)현금 결제 수단 사용이 늘어나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의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181개월(15년1개월)로, 2021년(178개월, 14년10개월)보다 3개월 늘었다.

1만원권과 1000원권 유통수명은 각각 4개월, 9개월씩 늘어난 135개월(11년3개월), 70개월(5년10개월)이었고, 5000원권은 작년과 같은 63개월(5년3개월)이었다.

1000원권과 5000원권 등 저액권은 주로 물품·서비스 구매, 거스름돈 등의 용도로 자주 쓰인다 보니 고액권보다 상대적으로 유통수명이 짧다.

은행권의 수명이 이처럼 늘어난 배경으로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 확대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거래용 현금 사용 감소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저액권과 중간액권은 길고 최고액권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국가마다 수명 추정 방식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최저액권과 중간액권의 유통수명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내구성과 국민의 건전한 화폐 사용 행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입 행원과의 대화 광주는 송중욱(가운데) 은행장이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신입 행원 20명과 '송프로와 소통하는 통통데이'를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MZ 세대와 선배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광주은행 제공>

"수출 차 세워둘 곳 없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목표항까지 로드탁송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임시 적치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수출 차량을 목표항까지 직접 개별운송(로드탁송)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추가 감산에 들어갔다.

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부터 수출용 차량을 목표항까지 개별운송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접어들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더 이상 임시 적치장에 적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는 하루 약 2000여대의 차량이 생산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나뉜다.

평소 주요 수출 차량인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약 1300여대는 카게리어 운송을 통해 목표항으로 운송, 내수용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전북 신대인, 경북 경산 출하장으로 이송해왔다.

하지만 운송이 중단되면서 개별운송을 통해 평동산단 출하장과 광주군공항, 장성 물류센터 등 광주

인근 임시 적치장으로 차량을 옮겨왔으나, 이날까지 1만6000여대를 적치하면서 더 이상 적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기아 측은 "광주 인근 적치장이 포화상태로 목표항으로 직배송하지 않으면 공장 라인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산이 중단되면 기아의 손실은 물론, 250여 협력업체가 모두 멈출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수출 차량에 대한 항만 직배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이날 금호타이어도 추가 감산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는 앞서 지난 달 30일 생산량을 30% 줄였고, 이날부터 70% 감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하루 생산량은 3만3000본에서 8000본으로, 곡성공장은 3만2000본에서 1만본으로 각각 줄어든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2년째 온정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오른쪽 8번째)은 올해로 22년째 '사랑의 쌀·김치 나누기'를 최근 열어 김장김치 100포기와 쌀 140포 등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애플, 완전 자율주행 개발 '후진'

현재 기술로는 어려워 '고속도로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수정

애플이 야심 차게 진행해 온 자율주행 전기차(애플카) 개발 목표를 '완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수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출시 목표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6년으로 연기했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는 애플카 개발 계획은 최근 몇 달간 경영진이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현재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놓고 고심하면서 표류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은 애초 애플카에 현재까지 자동차업체들이 구현하지 못한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인 '레벨 5'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결국 운전대와 페달을 제공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즉, 고속도로 운행 중에는 운전자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도심에 진입하거나 낯은 날씨를 만났을 때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애플카 전략을 수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원급 핵심 인력의 퇴사

가 잇따랐다.

애플워치 운영체제(OS) 등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애플카 프로젝트까지 맡게 된 케빈 린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더 실제적인 목표에 집중해왔다.

애플카는 현재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은 '시제품 이전' 단계로 알려졌다.

애플은 내년까지 애플카 디자인을 확정하고 2024년 말까지 각종 기능을 장착한 후 2025년 광범위한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애플카 내부 디자인은 당초 승객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는 리무진 스타일이었으나, 이번 전략 수정으로 운전석이 있는 전통적인 형태로 바뀌게 됐다.

이 같은 애플카 전략 수정은 애플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들을 괴롭혀온 기술적 장애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결국 이 계획이 애플의 새 효자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전남, 저수율 60% 미만 농업용 저수지 71곳 달해

가뭄이 지속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지난 6일 한국농어촌경영인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5곳과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농어촌공사 담당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1055곳의 저수율은 46%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839mm로, 평년(1269mm)의 66% 수준에 그쳤다.

전남에서 저수율 60% 미만을 나타내는 저수지는 71곳에 달한다. 전남본부는 장성호 등 4대호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과 우물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전남 7개 골프장에 대한 용수 공급을 모두 중단해왔다.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한 동계작물과 시설채소면적 2440ha를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완도군과 협력해 허우도 등 4개 섬 지역에는 지하수 우물을 개발해 하루 400t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소안도 등 4개 섬에 지하수 우물 10개를 팔 계획이다.

전남본부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한 대책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2.81(-10.35)
↓ 코스닥	718.14(-1.30)
↑ 금리(국고채 3년)	3.672(+0.039)
↑ 환율(USD)	1321.70(+2.90)

한은 광주전남본부 14일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행사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산업정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주공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지정토론·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숙훈 연세대 교수가 '지역 균형발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특성이 지역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 정부 지역산업정책 대응 방향'을 가지고 연단에 선다.

2부 토론에는 최정훈 전남도 의원과 이창영 전남대 교수, 민형정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강창구 한은 부장이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